

주요개념 : 실존적 간호, 善友(간호대상자), 좋은 변화(회복)

간호학의 실존철학적 접근* —서양의 실존주의와 동양의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최 연 자**

I. 서 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영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상황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의 평등을 즐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 존재에 대한 어두운 회의가 시작되고 또 인생에 대한 무거운 고뇌에 물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통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인간 실존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 자체 내에는 이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통과 질병은 인간의 중요한 비밀의 문을 열어 줄 열쇠이기도 하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의료인은 주로 물리적인 고통을 제거해주거나 줄여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종교인이나 상담자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의술도 신앙도 사용할 수 없는 철학자는 지금 당장 고통을 줄여주지는 못하지만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거나 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

다. 철학은 고통의 참모습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의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철학적 사색을 전개했던 철학이 실존주의와 불교사상이다.

간호학은 철학과 의학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학문이다. 간호학은 죽음 앞에 한계 지워져 고뇌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실존으로서의 인간과 물리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동시에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간호학의 대상은 한계 지워진 인간과 질병에 고통 당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상태이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고통에 처해있는 실존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위로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간호학에서의 선결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간호학의 대상이 죽음 앞에서 있는 실존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간호는 정신과 육체의 사이를 일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철학자와 의사의 사이에 자리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직접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도전자라면 철학자는 고통받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통한 자기초월을 시도한 자다. 그리고 간호사는 이 두 가지의 자료를 동원하여 현장에서 직접 고통 받는 자의 보호자이면서 벗으로서 그들의 인생 길을 함께 가야 할 동행자이어야 한다.

간호 대상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동안 궁극적으로 질병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의지를

* 본 논문은 1995년도 교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 원광보건전문대학 교수

갖는다. 이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호 대상자는 질병을 통해 건강의 욕구를 자극 받을 것이며, 건강의 욕구로 인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인간 실존으로서의 건강한 삶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간호 대상자는 인간의 본질을 자각함으로써 실존의 한계를 초월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考에서는 실존주의와 불교사상에서의 인간이해를 통해 간호 대상으로 하여금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실존주의와 불교사상에서의 인간이해를 간호학에 도입함으로써 간호학의 독자적 기능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독자적인 간호영역을 확고히 세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실존철학으로서의 인간이해

1. 실존주의에서의 인간이해

실존주의의 심리학적 기본음조는 세계 속의 인간의 위치가 갖는 본래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무의미성에서 연유하는 비극의 극한적 감정이다. 사실상 혐오감, 번뇌, 고통 등에 의해 드러난 실존의 무가치성은 인간 존재의 기본적이고 광범위하며 근절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한다. 우리는 붕괴되어 가고 있는 낡은 세계와 조적되어 가고 있는 세계사이에 살고 있다. 실존주의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내적으로 통일된 단일의 사유 체계라기 보다는 위급한 삶의 경우에 처하는 특정한 태도, 기분, 분위기 등을 표현한다(김영숙(역), 1992).

실존철학 또는 실존주의는 학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그러나 본考에서 실존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넓게 인간의 존재 성격을 실존이라 규정하고 이 실존을 자기사상의 중심으로 놓은 철학자들의 사상(한전숙, 차인석, 1982)들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실존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존재,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밝히고 존재의 의미와 보다 높은 가치를 開示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에서 인간 존재는 어떤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야스퍼스는 실존의 물음은 실존하는 자신에 의하여 순수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이데거에 의하

면 실존은 인간이 그 존재성을 보는 불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조가경, 1985). 그러므로 실존해명은 오직 인간 현존재의 상황분석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실존주의의 기본성격은 일반적으로 첫째,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입장과 둘째,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명제이다(한전숙, 차인석, 1982).

먼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라는 명제부터 살펴보면, 존재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질은 영원 불변한 實在을 말한다. 그러므로 존재란 영원불변한 실체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개의 현실존재를 말한 것이다.

인간인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 존재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해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현실 존재인 것이다. 즉 인간의 현실존재에는 개별성과 주체성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적인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자요, 더구나 여러 대상을 만드는 자인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놓고 쾨르트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 1원리이다.

다음으로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명제를 보면, 주체성은 단독 자로서의 主體를 말한다. 주체성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원죄에 허덕이는 존재로서, 그러기에 부단히 자기자신의 존재방식에 관심을 쏟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적인 실존을 말한다.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참은 나 자신에 대해서 참되다 성실하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있어서 인간적 실존의 과정은 참된 자기자신, 본래의 자기자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실존의 참된 모습은 부족한 현재의 자기를 넘어서려는 노력, 보다 더 참된 실존이 되고자하는 부단한 노력에 있다 하겠다(한전숙, 차인석, 1982).

야스퍼스는 인간의 특수한 한계상황을 죽음, 고뇌, 싸움, 죄의 네 가지를 들면서 이들 한계상황은 실존의 유한성을 깊이 깨닫게 하며, 그 좌절에서 초월 자에로의 비약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하였다. 실존은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스스로가 절망함과 동시에 초월자가 주재하는 현실에 눈을 돌려 존재의식을 변혁시키면서 본래의 자기존재에 회생시킨다는 것이다. 즉 한계상황은 실존을 각성케하는 근본계기라는 것이다.

2. 불교사상에서의 인간이해

연기법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불교철학은 현 상태의 실존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이 종교로 귀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실존과 단독 자로서의 만남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이다. 곧 인간이 실존하고 있는 현 상태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연기법칙은 <나>라는 존재도 내가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因)과 연(緣)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조건적 존재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현 존재가 연기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 또한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며,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것의 실체 또한 없으므로 인간이 실존함으로써 겪고 있는 불안, 죽음, 투쟁 등이 있을 뿐 이것 등을 겪어야 할 주체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곧 실존의 현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는 무상하고 무아인 현재의 내가 있을 뿐이지 불변하며 고정되어 있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은 이를 깨닫지 못하여 모든 사물에 집착함으로써 괴로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붓다는 연기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되는가의 조건을 밝혔다. 이것이 십이연기이다. 무명(無明)에서 노사(老死)까지의 연기과정은 무명으로부터 괴로움이라는 결과까지 유전하는 과정이므로 유전연기(流轉緣起)라고 한다. 반대로 무명을 없애면 자기중심적인 행위가 없어지고 따라서 습관적인 힘도 없어져 노사가 멸하는 연기과정은 실존 앞에 자유로워 질 수 있는 환멸연기라고 한다.

이러한 관찰로 인하여 붓다는 곱의 인생이 생겨나는 연유를 알았고, 곱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연유를 알게 된 것이다. 곧 불교철학은 인간 스스로가 괴로움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괴로움의 문제 또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Ⅲ. 실존철학에서의 인간과 간호개념의 비교

실존주의에서 인간의 주체가 곧 진리다라는 원칙과 불교철학에서 인간의 <고(苦)의 발생 원인이 인간 심신(心身)의 존재내부에 있는 것이지 심신의 밖에 있지 않다>, <발생의 속성을 지닌 것은 어느 것이든 멸의 속성

을 갖고 있다>(팔리어 경전), <자기는 자기 자신의 피난처이며 의지처이다>(법구경), <너 자신을 너의 섬으로 하고, 너 자신의 의지처로 하여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대반 열반경) 라는 것들은 주체성을 지닌 인간성 회복으로서의 자의성(自依性)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실존철학적 측면에서 간호 대상자는 자의성이 있으므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질병 앞에서 수동적이며, 의존적이고, 무능력하고, 자기 파괴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간호 대상자는 능동적인 의지로 건강증진의 목표를 향해 스스로 실천해 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양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간호 대상자의 자의성으로 말미암아 간호 대상자는 가능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므로,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되어짐(Becoming)이라는 가능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David, 1978). 가능적 존재인 인간은 의지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가능적 존재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직접 간접으로 상의상자(相依相資)한 유기적 존재이므로 시간적으로는 무시무종(無始無終)하고 공간적으로는 광대무변(廣大無邊)하여 개인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전체성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우주 내의 모든 사물의 존재 및 생성 과정에 공존한 가운데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 대상자인 인간은 상의상자(相依相資)한 유기체로서, 미래를 향해 되어 가는 가능적 존재이며, 자의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이다.

이상과 같은 실존철학적 측면에서는,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가 만난 현재는 올바른 인식에 의해 건강증진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적 계기임을 설명해 준다.

Parse(1981)는 인간은 환경과 함께 울동적 형태를 공동으로 구성하면서 공존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며 자유롭게 선택하는 개방적 존재이고, 계속적으로 관련된 형태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통합체라고 하여 인간의 되어짐(Human Becoming)을 제시하였다. Parse(1992)는 인간의 되어짐을 가치우선성에 관련되어 상호주관적 과정의 상황에서 개인적 의미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며, 우주와의 개방된 상호변화와 관련되어 울동적인 패턴을 공동 창조하는 것이고, 개방된 가능성을 가지고 다차원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Parse는 의미와 울동성, 초월의 3가지 주체가 철학적 가정으로부터 도출되었으나, 서양의 실존주의와 동양의 불교철학을 포함한 본 고의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는 의미와 초월, 변화와 자각(自覺)의 실존철학적 가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IV. 실존철학적 간호의 정의와 역할

질병은 병 그 자체만으로 독립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 당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앓고 있는 병의 역사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간호대상자가 고통받고 있는 실존과의 만남 속에서 간호대상자의 삶 그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실존적 동참자인 벗으로 만날 수 있을 때 간호대상자의 회복과 실존적 자기성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존철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간존재는 항상함이 없는 존재로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대한 존재방식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필자는 실존철학을 기초로 <회복>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간호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회복>의 의미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의 상태에서, 질병발생 그 이전의 건강한 상태 즉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고 그 이전의 과거 어느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의 개념은 아프기 그 이전의 만족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고자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것은 과거의 어느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집착을 강화시켜 괴로워해야 하는 존재의 양상을 낳게 한다. 곧 집착을 낳게 하는 <회복>의 개념은 간호대상자로 하여금 과거의 건강했던 상태만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간호대상자로 하여금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여 더 큰 불안과 분노와 고통을 갖도록 할 수 있으며,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새로운 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집착을 낳게 하는 <회복>의 개념은 붓다의 <유전연기의 죽음>이나 하이데거의 <작은 죽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미의 개념이다.

<유전연기의 죽음>은 윤회하는 것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습관력과 의지력이 현 상황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존재 양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과

거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과거처럼 건강해지고자 하는 집착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건강한 상태로만 회복하고자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과거의 건강한 상태처럼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착력이 현재 혹은 미래의 상황에 영향을 미쳐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도록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집착으로 말미암아 생노병사를 윤회해야만 하는 고통이다.

또한 <작은 죽음>은 인간에게 장애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죽음이므로 <삶 안에 있는 죽음>을 떠맡을 수 없다. 삶 안에서 죽음을 떠맡을 수 없는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과거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실존을 떠맡거나 스스로 자기존재의 방식을 선택하여 자신을 앞으로 내던져 만들어 갈 수 없으므로 그저 던져져있는 존재로서 <죽음의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질병이 발생하여 회복하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질병으로부터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을 경험할 뿐 그 한계성을 극복하여 질병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건강했던 상태로의 <회복>의 개념을 포함한 간호상황은 간호대상자로 하여금 괴로움을 더 겪게 할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의 자연스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이기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질병의 부정은 질병이라는 한계 또는 죽음이라는 한계에서부터 인간이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여 오히려 인간이 처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실존철학의 뜻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실상을 파악해 들어갈 수 있는 본질적인 실존의 회복을 위해 <좋은 변화>의 의미가 포함된 본질적인 회복의 간호상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질병을 통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계속변화만이 있을 인간의 존재를 수용한 것이며, 그 변화에 대한 각 대상자의 새로운 존재방식은 간호대상자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 그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만을 추구하는 간호는 인간의 실존적인 측면을 외면한 체 물질과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간호는 인간이해와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한계 지워진 생명 앞에서 결국 좌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존철학적 접근의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의 실존적 만남을 통한 인간의 실존적 성숙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자각의 과정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즉 실존철학적 측면에서의 간호는 존

제의 본래적인 상태에 대한 폭넓은 인식으로서 질병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존적 간호는 인간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면서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에 적합한 최대의 기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의 실존적 만남을 통해 간호 대상자가 인간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의지로 변화에 적합한 최대의 기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실존적 성숙의 과정이다.

현대 간호는 <건강증진-간호> 패러다임으로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향한 움직임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과학이다. 이것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건강증진의 속성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건강증진의 개념은 질병통제 이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생활패턴의 변화(Parse, 1990)를 가져오는 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간호는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질병을 모든 것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하나의 건강한 존재의 자연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식의 확대를 도움으로서 궁극적으로 한계 지워진 실존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식의 확대는 외부에서 얻어질 수 없고 인격 각자의 자신 내부에서 비롯되는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 간호는 간호 대상자를 예측적인 인간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주적 인간상으로서 간호 대상자 각자가 자신의 자유와 건강에 책임질 수 있도록 自依性을 위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최연자, 1995). 간호 대상자가 자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며 <좋은 변화>로 향하고자 할 때, 간호대상자는 현 실존 상태에서 스스로 실존의 공허를 메꾸어 갈 수 있으며,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견디어 낼 수 있는 내적인 통합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질병 앞에서 실존의 무의미와 실존의 상실 그리고 실존의 소외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대상자의 실존적 만남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괴로움에서 오히려 질병과 죽음의 한 가운데에서 자유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 간호학의 대상을 실존적 인간으로서 수용

간호학의 대상은 질병의 가능성이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이므로 인간을 어떠한 측면에서 이

해하느냐에 따라 간호학의 접근은 다양한 방법으로 달라질 수 있다.

간호학의 대상은 질병이나 신체나 인간의 어떤 부분이 아닌 인간전체이므로 병에 관한 설명과 해석은 인간론, 즉 인간학에 근거하여야 하며, 병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무엇이나?', '인간의 삶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병이란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건강과 병도 결국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하나의 길(진교훈, 1984)이므로 인간의 본질 이해가 없는 간호학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호학의 대상인 인간은 전적으로 구조와 기능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간호 대상자들의 문제는 세상의 경험에 대한 외적 어려움과 직접 연결된 것보다는 오히려 간호 대상자 자신의 내적 어려움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호학은 간호 대상자가 건강-질병 상태에서 스스로 대응, 조절, 극복, 수용할 수 있도록, 간호 대상자의 내적 힘을 기를 수 있는 독특한 실존적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실존철학은 인간의 존재현상과 한계 그리고 고뇌를 극복하여 영원하거나 자유로워지고자 하여 출발한 것이므로 간호대상자의 질병과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는데 내적 힘을 제공할 수 있다.

간호 대상자의 질병이 진행적이거나 영구적일 때 위안을 가져다주는 것은 종종 질병 자체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이나 대응'이다. 이것은 간호 대상자가 자신의 실존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러나 고통스런 진실들을 깨닫게 될 때 내적인 힘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김명자, 정영(역), 1994).

실존주의에서의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주체성이 진리다' 등은 간호 대상자만이 경험하고 있는 개개의 현실존재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개인은 참된 자기 자신, 본래의 자기자신으로 되어 가는 존재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인간적인 실존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 그 개인이 질병에 어떻게 반응하고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존재의 구체적인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간호 행위는 간호 대상자가 참된 자기 자신과 본래적인 자기자신으로 되어 가는 존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며 그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간호 대상자에게 있으므로 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실존주의에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현실존재 즉 현상과 경험을 증시하지만 인간의 본래적인 실존의 의미는 반드시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교사상은 인간실존의 한계상황을 연기법칙으로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있으며, 서양의 실존주의에서 인간실존은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던져질 존재 속에 이미 양심을 갖고 참된 자기 발견과 자기창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간호 대상자의 존재가 연기적인 존재로서 무아이며 그 대상이 겪고 있는 그 현상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다는 것을 추가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간호 대상자가 무아라는 설명은 간호대상자의 주체가 없다는 것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라고 집착하는 허상을 무아로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간호 대상자'를 '간호 대상자'의 주체로만 파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간호 대상자'의 주체를 구성하게 하는 모든 인연을 포함한 그 개인의 구체적인 현상과 반응 등을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행위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의 현 존재방식이 어떤 것에 연하여 결정되어있으며, 어떻게 결정되어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존철학의 측면에서 간호대상자는 <생노병사의 불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떠맡음으로서 <생노병사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곧 인간적인 실존은 참된 '나', 즉 참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하기 때문이다.

간호 대상자가 겪고 있는 질병은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존재임을 확연히 들추어 내주는 기회이며, 주변의 여러 조건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존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와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건강한 존재로 다가가는 긍정적 개념이다.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상황은 실존을 각성케하는 근본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간호 대상자로서의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현상계 내의 존재 법칙에 의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 현상 앞에서 변화를 부정할 때의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물리적인 질병에 매어있을 것이므로 실존으로서의 자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생·노·병·사의 변화는 인간 존재의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질병 또한 건강한 존재 현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다.

건강한 존재는 변화하고 있는 그 자체가 건강하므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도 변화하고 있는 건강한 존재

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곧 <本有實相으로서의 健康>이다. 간호 대상자가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여 질병을 <본유실상으로서의 건강>으로 파악한다면 건강증진으로 향해 나갈 수 있다. 모든 간호 대상자는 존재의 측면에서 이미 <본유실상으로서의 건강>한 상태이므로 건강증진의 차원에서 간호를 제공받아야 한다(최연자, 1995).

간호사가 간호 대상자의 변화하는 건강한 존재를 수용하여 건강증진의 차원에서 간호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간호 대상자를 [患者]라고 불러야 하는 근거가 없게 된다. 또한 현대간호가 질병중심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향해야 한다면 간호대상자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용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 필자는 <환자>라는 용어를 실존철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용어로 제안하고자 한다.

질병은 인간에 있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가기 위한 질병 그 이상의 의미로서 존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실존적 인간은 질병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변화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실존의 몸부림 속에서 결국은 질병과 변화를 스스로 떠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존철학적 측면에서 간호대상자는 수동적으로 <아파있는 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아픔을 감당할 줄 아는 자>이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아픔을 통해 실존의 한계를 극복하여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존재의 실체를 파악해 갈 수 있도록 '벗'으로서 동행자이어야 한다. 즉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는 함께 성숙해 가는 동행자로서 동반자적인 <善友(좋은 벗)>의 실존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최연자, 1995). <善友>의 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속에는 존재를 옹계, 바르게 알아가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患者>라는 용어로서의 간호대상자는 질병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며, <善友>라는 용어로서의 간호 대상자는 <본유실상으로서의 건강>을 수용하고 건강증진을 향해 좋은 변화로 향하고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실존철학의 측면에서 간호 대상자는 고양된 정신으로 인간의 한계상황을 극복하여 질병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고자 하는 벗들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간호 대상자를 <善友>라는 용어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VI. 결 론

간호는 괴로워하고 있는 정신과 병든 육체 사이를 일터로 하고 있으므로 간호학은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과 병의 문제를 다루는 의학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간호학의 대상인 인간은 궁극적으로 실존의 한계상황인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며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대상자가 실존의 모습을 직시하고 병과 연결되어 있는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실존의 현상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때, 건강한 모습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의 삶까지도 견디어 낼 수 있는 내적 정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즉 간호대상자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병에 몰입되어 고통 당하는 <소유론적 인간>에서 병에 새롭게 도전하여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론적 인간>으로의 새로운 삶을 열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의 학문적 이정표는 공통적으로 실존적 한계에 처한 인간존재 특히 고통받고 있는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 설정되어야 한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고정불변한 본질로서가 아니라 존재 즉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존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던져지는 존재로 스스로가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존재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서 기다리거나 불안에 허덕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앞질러 죽음을 떠맡으므로써 죽음의 불안은 오히려 <죽음에의 자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실존주의에서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서의 작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죽음이 포함된 본래의 인생태도로서의 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말하고 있다.

불교사상에서는 모든 존재를 연기의 존재법칙 속에서 무상성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적인 <나>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과 이것,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원한 관계 계열 속에서 항상 변해가고 있는 존재이다. 불교사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은 잘못된 인식 즉 無明에 의해 <내>가 이대로 항상 하리라는 그릇된 집착에 빠져있는 <소유로서의 존재 자>이다. 그러나 불교철학은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평안(열반)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오히려 참된 인간 본래의 존재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인

간 실존의 이해를 통해서 볼 때 간호학에서는 <회복>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 과거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개념은 과거 그 어떤 좋았던 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집착을 낳는다. 이것은 실존의 한계상황을 극복해서 <질병에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질병을 부정하여 존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아픔을 낳게 한다. 이것은 존재를 <던져진 존재>로 보는 것으로서 과거적 필연에 얽매이게 하며, 질병 앞에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건강했던 상태로의 <회복>의 의미 속에는 집착이 포함되며 집착의 원인을 불교철학에서는 무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명으로 말미암은 간호대상자는 존재의 무상과 무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의 건강상태로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계속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본 고에서는 실존철학적 측면에서 간호대상자가 질병을 통해 과거적 필연성인 <던져진 존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회복>의 의미를, 질병을 통해 오히려 <던져질 존재>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래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존의 본질적인 회복의 <좋은 변화>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았다.

또한 간호대상자는 질병을 통해 <던져질 존재>로서의 가능태로서, 간호사와 만나 질병을 좋은 변화의 과정으로 끌어안고 오히려 질병을 떠맡으며 본래의 자기자신을 스스로 열어가면서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와 간호대상자의 만남은 실존의 지평 위에서 함께 성숙해 가는 실존의 동행자로서 <좋은 벗>의 관계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실존철학적 측면에서 간호대상자를 고찰하여 <근심 있는 자>, <앓고 있는 자>, <병 있는 자>의 소극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질병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患者>라는 용어를, 간호대상자가 스스로의 질병을 떠맡으므로써 오히려 간호사의 인식 주체와 함께 만나 자각해 가는 동행자의 벗으로서 그리고 건강과 자유와 해탈을 향해 <던져질 존재>로서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는 <善友(좋은 벗)>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간호학의 이와 같은 실존철학적 접근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의 실존적 만남을 통한 환자의 인간적 성숙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자각을 돕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으로 질병의 고통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하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화(단기4287). 불교학 개론, 보련각.
- 김수지, 강규숙(1987). 간호전문직 발전과 전망 : 간호의 정의, 대한간호협회, 10-16.
- 김현일(편역)(1983). 현대철학의 제문제, 형성사.
- 김태길(1976). 서양윤리학사, 박영사.
- 렘프레히트(저), 윤명로(역)(1978). 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 보텐스키(저), 한전숙(역)(1983). 현대철학, 정음사.
- 서경보(1978). 불교학개론, 명문당.
- 손봉호(1995). 고통받은 인간, 서울대출판부, 4-6.
- 이규호(1979). 현대 철학의 이해, 제일출판사.
- 윌플라 라홀라(著), 진철승(譯)(1992). 붓다의 가르침, 대원정사, 59.
- 増谷文雄(저), 이원섭(역)(1971). 불교개론, 현암사, 143.
- 지. 노바크(저), 김영숙(역)(1992). 실존과 혁명, 한울총서, 20.
- 진 와슨(저) 김명자, 정영(역)(1994). 간호철학 : 돌봄 과학으로서의 간호학, 현문사, 217-226.
- 전두하(1975). 현대철학의 제유형, 진영사.
- 조가경(1985). 실존철학, 박영사.
- 진교훈(1984). 철학적 인간학에서 본 정신건강의 의미, 카톨릭대학 신학부 논문집, 9, 104-106.
- 최연자(1995). 근본불교를 중심으로 한 간호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하영수(1986). 간호과학개론, 신광출판사. 78-86.
- 한전숙, 차인석(1982). 현대철학 1, 서울대출판사, 2-8.
- 雜阿含經, 卷二, 大正 1 / 14c, “四大因四大緣 是名色陰”
中阿含經, 卷七, 30.
象跡喻經 大正 1 / 464c “有色被一切四大及四大造”.
中阿含經, 上十一.
頻婆娑羅王迎佛經.
- American Nurses Association(1980). Nursing : A social policy statement. Kansas City, MO : A. N. A., 9.
- Meleis, A.I.(1985). Theoretical nursing : Development & progress. Lippincott Co.
- Parse, R.R.(1981). Man-Living-Health : A theory of nursing.
- Parse, R.R.,(Editorial)(1990). Promotion and prevention : Two distinct cosmology. Nursing Science Quarterly.
- Parse, R.R.(1992). Human Becoming : Parse's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 : 1, 35-42.
- Paterson, J., & Zderad, L.(1976). Humanistic nursing N. Y. : John Wiley & Sons.
- Rhys Davids, Outlines of Buddhism(London : Methuen & co, Ltd, 1938 : reprinted., Oriental Books reprinted co.,1978), 16.
- Travelbee, J.(1966). Interpersonal aspects of nursing, Philadelphia : Davis Co.

– Abstract –

Key concept : Existential Nursing, Good
friend(patient), Good change(recovery)

Existential Philosophical Approach to Nursing Science

*Choi, Yun Ja**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nursing in relation to the existential philosophy of the West and Buddhistic philosophy.

It examined how human beings and death are interpreted and understood in existential philosophy as well as in Buddhistic philosophy.

Then the study suggested that nursing should focus on helping the sufferer to find meaning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his or her existence.

When people have the opportunity to realize certain important but painful truths about their existence, they develop internal strength and control of their lives. Just as people learn to face their being, so can they come to terms with their non-being.

According to the causal process in Buddhism, Human Being is not always annihilation of self. Therefore, birth, aging, disease and death go through the process of natural change and it is the appearance of human existence which is inherent in the health of every human being. To promote our health we must gain an insight about this phenomenon.

This study viewed nurses' clients as <good friend> rather than <patient> which focuses on a disease-oriented concept.

The concept of <good friend> views nurses' clients as active participants to create their life and as responsible persons in a constantly changing life.

The study also examined the concept of recovery which means to come back to the previous healthy state and it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recovery should be changed to <good change>, because in existential philosophy, human beings are viewed as never going back to the past but moving on to the future by creating their existence.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nursing should help <good friend> enlighten their existence to be free from pain and death and to get control over their existence.

* Dept. of Nursing Science, Wonkang Public Health Junior College, Korea.
Tel : 0653-840-1310, Fax : 0653-840-1311